



2008121

트러스트 무용단의 세번째 전환

# THIRD TURN

2008.12.10.(수)-20.(토)

평일 8시/ 토, 일 5시. 게릴라극장.

예매: 사랑티켓 [www.sati.or.kr/](http://www.sati.or.kr/) 티켓파크 1544-1555  
공연문의: 트러스트무용단 02-879-0613 [www.dance.ne.kr](http://www.dance.ne.kr)

## 트러스트 무용단의 세번째 전환\_3rd turn

### 작품내용

둘이 서로 만나고 그 아래에 남은 한 줄을 자리바꿈하여 삼각을 이루는 것을 '세 번째 전환(轉化)'라 이름 한다. 또한 두 번을 부정하고 그 두 번을 포함한 세 번째를 긍정함으로 만나는 것이 스스로 믿음의 증인이 된다.

나뒹구는 쓰레기들의 희망과 암기될 수 없는 수들의 기적, 가랑이 사이로 젖어드는 노년의 기쁨이 우리의 기억과 함께 매일 새롭게 전송되고 있다.

스스로의 몸조차 기능하기 힘든 오늘의 노동은 무한한 반복만이 있으며, 삶의 희망은 미래의 길을 따라 조금씩 앞서가기만 한다.

건강한 노동의 회복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증인되는 것이며, 살아 있음의 확인이어야 한다.

몸과 몸 사이, 문과 문 사이를 팽팽히 줄을 이어 그 위를 맨발로 서고, 걷고, 뛰고, 일러 아슬아슬, 어 째어 째 미끄러지듯 육체의 춤이 드러난다.

오랜만의 휴일 반겨 맞은 눈동자는 죽음을 유예하는 육체들의 축제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 작품의도

오늘날 매체라 함은 세상이 나고 사라지게 하는 유의미한 것이며, 그로부터 끊임없이 생산되는 잉여가 세상이 되고 그것을 소비하는 즐거움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로한다. 『3rd turn』은 육체의 춤이 인류의 건강한 노동에 스스로 증인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일할 줄 모르는 이들의 일, 놀 줄 모르는 이들의 놀이, 그리고 춤 못추는 이들의 춤이 변증법적으로 순화할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춤추고 있지 않다. 오늘 우리는 일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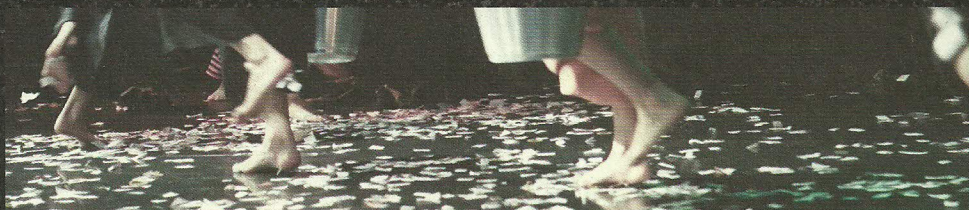
작품이 진행되는 중 우리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해석하기가 힘들거나 해석되어진 내용들을 만난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자아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춤추고 노동할 뿐이며, 그것이 어떤 변화와 관계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춤은 그 매체인 육체의 은유이자 예언이 된다. 우리의 춤은 단지 반응하고 있으며 암시가 될 뿐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물질로서의 생명의 것, 즉 육체의 춤이자 노동인 것이다.

또한 『3rd turn』은 트러스트 무용단이 10여년 작품이 보여주었던 민족에서 개인으로, 구조에서 존재라는 개념들의 대응 혹은 관계성을 넘어 이제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모든 생명들 사이에 줄을 놓아 협력공생 하고자 하는 트러스트의 창작에 있어 3번째 전환을 여는 첫 작업이기도 하다.

『3rd turn』은 부정적인 것의 긍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 초차 불려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는 트러스트 무용단의 오늘과 같으며 민족이 그러하며, 나아가 인류와 세상 모든 생명의 전환이 그러하다.

우리의 세 번째 전환은 거할 곳을 찾아 떠나는 긴 유랑의 정착인 것이다.





안무 |



김형희  
Kim Hyeonghee

연출 |



김윤규  
Kim Yungyu

출연 |



이선영  
Lee Sunyoung



박재영  
Park Jaeyoung



지현준  
Jee Hyeon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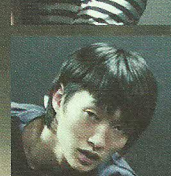
이선주  
Lee Sunju



이지나  
Lee Jina



신민  
Shin Min



서진욱  
Seo Jinuk

연주 |

Yohm Project



연리목  
Yonrimog



움브레  
Ohmbre

무대디자인\_김경희  
의상디자인\_이진희  
조명디자인\_강정희  
조명오퍼레이터\_구인주  
영상\_틀어  
사진\_최병재, 김군  
일러스트\_신민  
무대감독\_구선진  
홍보\_김효신  
마케팅\_서선영  
기획\_이효숙, 조정미